

보도설명자료 (‘15.11.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수출감소 장기화 예상롭지 않다 (‘15.11.1. 연합뉴스)

수출 6년만에 최대 낙폭, 새 수출동력 발굴

시급하다 (‘15.11.1. 매경)

1. 기사내용

-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.8% 줄어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올해 수출이 감소세인 것은 세계교역 둔화, 저유가 지속에 주로 기인했음

* 세계교역 증감율(1~8월, WTO) : △12.0%
두바이유(\$/B) : (‘14.8월) 101.9 → (‘15.10월) 45.8

- 다만, 10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(△15.8%)한 데는 경기적 요인 외에 통계상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음

- 지난해 10월 월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516억 달러를 기록*함에 따라 금년 10월 수출은 통계상 기저효과로 감소율 확대

* ‘14.10월 對美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(68억 달러, 24.4%↑), 철강(美 에너지 산업 호조, 30.4억 달러), 선박(해양 플랜트 3척 인도, 45.3억 달러), 반도체 실적 최대치 기록(11.5%↑, 59.5억 달러) 등 주요 품목 호조

- 또한 유가영향 품목(석유제품·석유화학)과 선박 수출이 급감하며 일시적으로 감소폭이 확대 되었음

- 이번 달 수출액은 435억 달러로 ‘14.10월 516억 달러보다 82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석유제품, 석유화학, 선박의 감소분(△62억 달러)임

* 석유화학·석유제품·선박 수출액(억 달러) : (‘14.10월)131 → (‘15.10월)69

- 석유화학·석유제품의 경우 저유가 영향으로 9월까지 월 평균 24억 달러 정도로 감소하였으나, 이번 달은 시설보수 까지 겹치며 일시적으로 감소폭이 확대(△33억 달러)되었음

* 석유제품 △44.9% (△19억 달러), 석유화학 △31.6% (△14억 달러) 감소

- 선박은 지난해 10월 드릴십, 해저파이프 설치 작업선, FPSO 등 해양플랜트 3척(17억 달러)이 인도되며 수출이 급증(42.5%)한데 반해 이번 달은 해양플랜트 없이 상선 위주로 인도되며 감소폭 확대(△29억 달러)

- 선박은 통상 2~3년 전 수주물량이 수출되는 형태로 인도 시점의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품목으로 시기별 인도 물량 변화에 따른 일시적 수출급감 현상으로 볼 수 있음

- 11월에는 해양플랜트 수출, 유가영향 품목의 감소폭 완화 (‘14.10월 이후 유가급락) 등이 예상되어 10월보다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나성화 과장 (044-203-4040)
천장 사무관 (044-203-4042)